수도권거주 50대 중년층의 3대동거주택에 대한 의식

곽 유 미*(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주거학전공 박사과정)
최 정 신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교수)

근대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가족문화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점차 변화됨에 따라 자녀세대가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고자 부모세대와 별거하려는 경향이 증가하였고 노인 자신도 자녀들과 동거하기 보다는 별거를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노부모가 여전히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시켜주고,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 가사노동 및 손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3대동거의 거주형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3대동거주택에 대한 연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목적은 5-10년 내에 제3의 연령기에 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5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3대동거주택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50대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유층표집하여 설문지조사를 하였다. 연구방법은 2002년 11월 2일부터 2002년 11월 23일 까지 설문지를 수집하여 기재가 부실한 46부를 제외하고 총 556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교차분석,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50대 중년 3대동거주택에 대한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대 동거 주택내에서 노부모 사용공간 비율차이는 전체 면적 중 1/3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둘째, 기혼자녀와 노부모와의 주택거리 차이는 한 주택 내에 함께 동거하는 것보다 걸어서 10분~30분 거리를 원한다.

셋째, 부모와 자녀세대의 공간구분은 인접한 독립된 두개의 주택을 희망하고 한 주택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침실과 욕실을 세대간에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기를 희망하였다. 한 주택 내에 부모 자녀 간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동거하는 것보다 근거리에서 정서적인 지원을 주거나 받는 정서적 유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3대동거주택 개발시에 인접 별거의 주택유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3대동거주택의 최소 사용면적은 평균 '31-40평'을 원하였다. 다섯째, 내부환경요구는 학력과 월평균 가계소득에서, 외부환경요구는 월평균소득과 주택소유형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노후에 필요한 개인실은 원룸형에 규모는 11-15평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전에는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전통윤리의식에 의해 의무적으로 3대 동거가 이루어졌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세대별 가치관 변화, 생활 향상 등으로 이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다. 따라서 3대 동거가족의 주생활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여 여기에 적합한 주거형태와 평면계획을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는 3세대 공동주택의 개발이 요구된다.